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공기관 무기계약직 늘었다

올해 공공부에서 창출된 신규 일자리 가운데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무기계약직 신규 일자리 비중이 과거보다 대폭 늘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고용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도 정책' 기조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무기계약직을 대거 채용하는 편법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의 공기업·공공기관 136곳이 올해 1분기(1~3월) 신규로 채용한 규모는 7901명이다.

무기계약직 신규일자리 비중 급등
평년 한 자릿수서 약 27%로 올라
채용 규모는 커졌지만 '편법' 지적

이 가운데 정규직은 약 73.1%인 5778명이고, 무기계약직은 26.9%인 2123명이다. 비정규직이나 파견·용역처럼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소속외근로자는 통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에서의 정규직 비중은 과거보다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당장 지난해에는 연간 신규채용 2만 1134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93.3%(1만

구분	올해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전체 정규직+무기계약직	7,901	19,726	19,634	18,023
정규직	5,778	19,726	18,178	16,185
무기계약직	2,123	1,409	1,456	1,837
정규직 비중	73.1	93.3	92.6	89.8
무기계약직 비중	26.9	6.7	7.4	10.2

*올해 1분기 기준 직원수 500명 이상의 공기업·공공기관 136곳 대상. /자료=알리오·CEO스코어

9726명)다. 제작년에도 총 1만9천634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92.6%(1만8178명)이었고, 2015년에도 1만8023명 중 정규직은 89.8%(1만6185명)였다.

일례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경우 올해 1분기 849명을 채용했다. 이는 작년 연간 신규채용 규모(21명)에 비해 40배 이상 많은 숫자지만 고용 형태는 모두 무기계약직이었다.

코레일네트웍스(46명)·신용보증기금(25명)·한국장애인고용공단(24명)·한국

인터넷진흥원(12명) 등도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올해 1분기 각각 296명, 91명을 새로 뽑았으나 정규직 신규 채용자는 2명씩에 그쳤다.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숫자'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단 채용 규모 자체는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미 올해 1분기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규모(2만1134명)의 37.4%에 해당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국제여름학교 학생들 '삼계탕 맛있어요~'
 초복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2018 국제여름학교 초복 맞이 보양식 체험 행사'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삼계탕을 먹고 있다. 이번 초복 맞이 보양식 체험 행사는 한성대 2018 국제여름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총 4개국에서 온 22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참가했다.
 /뉴시스

신입구직자 40% "인턴십 경험... 67% 불만족"

예체능>경상>사회과학>인문계열 순
평균 급여 144만원, 외국계 가장 높아

올해 하반기 신입직 구직에 나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5명 중 2명은 인턴십 근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4년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855명의 '인턴십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1%(744명)가 '인턴십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공별로는 '예체능 계열' 전공자 중 인턴십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계열(44.8%)과 사회과학계열(44.4%), 인문계열(40.5%) 전공 경험자가 많았다.

반면 이공계열(35.4%), 자연과학계열(29.6%) 전공자 중에는 인턴십 경험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별로는 남성(37.8%) 보다 여성(41.4%)이 많았다. 대학 재학생(34.3%) 보다는 졸업한 취업준비생(43.0%) 중 인턴십 경험자가 많았다.



(31.5%)'을 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인턴십 월 급여는 평균 144만원으로 집계됐다. 급여는 근무기업에 따라 1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인턴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외국계기업으로 평균 156만원이었다. 이어 중견기업(평균 148만원)과 대기업(평균 146만원)의 인턴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소기업(평균 141만원)과 공기업(평균 140만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턴십 경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인턴 경험자의 73.4%는 '인턴 경험이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인턴십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7.6%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자 32.4%보다 높았다.

인턴 경험에 만족하는 이유 중에는 '직무관련 일을 배웠고(65.8%)', '기업 분위기나 조직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서(63.4%)'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각 10명 중 6명 정도로 많았다.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생겨서(51.1%) 만족한다는 응답자도 절반수준이었다.

/이법종 기자 jcker@

대학가 소식

한화S&C-고려대 'AI 공동연구 채용연계 산학 협력'

한화S&C가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데이터마이닝(DMQA) 연구실과 '인공지능(AI) 분야 산학 협력'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한화S&C는 연구실과 공동으로 AI 알고리즘·모델과 관련한 학습·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수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채용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상생 관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화S&C는 AI 분야 우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대 데이터마이닝 연구실과의 협력이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준생 64% "하반기 구직난 더 걱정"

구직자들은 올 하반기 구직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구직자 446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예상 구직난'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7%는 '상반기보다 구직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구직난이 심각해지는 이유로는 '대내외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별 채용이 더 축소될 것 같아서'(55.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청년 실업률이 증가해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50%),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고용정책 변화로'(33.5%),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서'(28.2%), '제조업 등 전통적으로 고용을 주도했던 산업이 축소돼서'(27.8%), '경쟁자들의 스펙이 더 높아져서'(23.2%), '청년실업 해소 정책이 별 소용이 없어서'(22.5%) 순으로 대답했다.

구직자들은 심화된 구직난의 대책으로 '눈높이 낮춰 입사지원'(54.2%, 복수응답)을 1순위로 꼽았다.

/이법종 기자

교육부 '교육지원 한눈에' 맞춤형서비스 확대

교육부의 교육복지·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 '교육지원 한눈에' 누리집이 18일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육복지·지원 정책도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 3월 구축한 교육지원 한눈에는 학생, 학부모, 평생학습자 등 정책 수요자가 자신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맞춤형으로 조회할 수 있다. 신청 시기 도래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준다.

교육지원 한눈에는 교육부의 60여 개 주요 교육 복지·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지원 정책을 추가하기로 4월 의견을 모았다.

이번 확대 개편에 포함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 정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및 통학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비 대금 지급 지원' 등 90여개 정책이다.



교육부. /메트로신문

또한 특수(24개), 다문화(23개), 저소득층(19개)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부담을 해소하는 지원 정책들이 포함되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수요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이번을 계기로 교육정책 수요자들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법종 기자

국민대 자율車팀 'KAI', 프랑스 국제대회 결선 진출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 소속팀 'KAI'가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발레오 이노베이션 챌린지 2018' 결선에 진출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발레오 이노베이션 챌린지 (VALEO INNOVATION CHALLENGE) 2018'는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가 주최하고 20만유로(한화 약 2억600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국제 대학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전세계 107개국, 680개의 대학, 1470개 팀이 참여했다. 결선에 진출한 팀은 9개다. 국민대 KAI(Kookmin Automotive Intelligence)팀은 Autonomous Vehicle 부문에서 프랑스, 일본, 캐나다 3개팀들과 함께 결선에 진출했다.

경희사이버대 DMC지원시설 입주기업 선정

경희사이버대학교 '관광 AR·VR 연구실'이 서울산업진흥원의 '2018년 DMC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 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서울시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공모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관광 분야 산학협력 모델'로 선정됐다.

관광 AR·VR 연구실은 지난 4월 서울 상암 DMC의 SBA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협력기업과 입주식을 진행했다. 협력기업은 ELS edu, SOFTDEUS, 씨젠 글로벌과 158코리아 등이다.

/이법종 기자